

후아나 수녀의 침묵의 수사학

— 약자의 저항이라는 파토스와 진리의 표식이라는 에토스 —

송 상 기

단독/고려대학교

Song, Sang-Kee(2008), The Rhetoric of Silence in Sor Juana Inés de la Cruz,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83-102.

This essay delves into the rhetoric of silence in *Carta atenagórica* (1690) and *Respuesta a sor Filotea de la Cruz* (1691) of Sor Juana Inés de la Cruz. In 1690, Manuel Fernández de Santa Cruz, bishop of Puebla, published without Sor Juana's permission her critique about Portuguese Jesuit preacher António Vieira. Using the female pseudonym of Sor Filotea, he also admonished Sor Juana to concentrate on religious rather than secular studies. Sor Juana responded to the bishop of Puebla in 1691 with her magnificent self-defense and defense of all women's right to knowledge. Throughout the *Respuesta*, Sor Juana expresses her utmost modesty to Sor Filotea but remains strong in supporting her larger cause. To demonstrate her own space of knowledge as a woman, she tactically uses the rhetoric of silence in masks of subordination and ignorance facing the peril of Inquisition. As a "mute penitent", her signal of silence serves as a tactic of the weak to express her devious resistance to paternalistic dogma. And she notifies discreet notes about knowledge that can't be defined mere words nor gesture of mysticism. Thus, by the intriguing interplay between saying and not saying, Sor Juana unveils hidden masks created by tension between text and context, between paternalistic church and female intellectual, between scholastic dogma and proto-Enlightenment notion of knowledge.

[rhetoric/ silence/ Sor Juana Inés de la Cruz/ Respuesta a sor Filotea;
수사학/ 침묵/ 후아나 수녀/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

I. 들어가며

후아나 수녀(Sor Juana Inés de la Cruz, 1651-1695)의 『아테네 여신의 지혜에 필적하는 편지 Carta Atenagórica』(1690)와 『펠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 Respuesta a sor Filotea de la Cruz』(1691)이 야기한 필화사건은 재기발랄한 한 수녀의 침묵서약으로 종결이 된 듯 했지만, 이 여인의 필화에서 나타나는 침묵의 수사학은 반어적으로 수많은 의미와 반향을 쏟아내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위계적 권력 내의 암투와 그 안에서 희생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수녀가 침묵과 굴종을 서약하지만, 이러한 침묵과 굴종의 수사의 외피 속에서 세속적 지식추구 자체의 우회적인 투쟁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지성사에서 특이점을 지니는 사건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설파한 여성 자신의 공간을 수녀원 내의 자신의 서재에서 획득했던 후아나 수녀는 교회 조직 내부에서 글을 썼지만, 외부로 투사했던 그녀의 변론문은 에밀 졸라의 1898년 문학 신문 로로르(L'Aurore, 여명)에 〈나는 고발한다! J'accuse!〉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페릭스 포레에게 보내는 유명한 공개편지를 떠올리게 한다. 후아나 수녀의 서신이 졸라가 드레퓌스 사건을 폭로한 것처럼 격양된 고발은 아니고 당대의 역사적 파장도 크지는 않았지만 왜곡된 공권력에 저항하고 진실을 갈구하는 지식인의 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훗날 전개될 페미니즘 담론이나 계몽주의 담론을 이미 바로크 시대에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글은 졸라의 공개편지 이상의 선구적 에피스테메를 지니고 있다.

예로니모 수녀원의 자신만의 공간, 서재에서 생산된 저술과 토론은 그녀를 단순히 여성작가라는 차원을 넘어 당대 세속적 지식까지 포괄하는 최고의 지식권력의 상징적 반열에 오르게 했다. 그녀는 수녀의 신분이었지만 헌신나 회곡은 국가적 행사에 낭송되거나 공연되는 국민작가로 누에바 에스파냐 궁정의 열렬한 지지와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었다. 누에바 에스파냐가 배출한 최고의 백과사전적 학자는 까를로스 데 시구엔사 이 콩고라(Carlos de Sigüenza y Góngora, 1645-1700)와 후아나 수녀를 꼽을 수 있는데, 후아나 수녀가 예로니모 수녀원에 소속되어 있었듯, 시구엔사 이 콩고라 역시

예수회 수사로서 멕시코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지식권력이 교회 내부에 소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의 상황에서 세속적 지식추구가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일어난 후아나 수녀의 필화사건은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신학논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과학의 신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근대성으로 도달하기 위한 산통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후아나 수녀의 침묵은 그것이 그녀의 펜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회권력의 물리적 제재의 산물이라는 하지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 미래를 예비하는 정중동(靜中動)의 잠재태로 파악될 수 있다.

계몽의 세기를 목전에 두고 그 어떤 인문학자보다도 인식의 폭이 자유로웠지만 당시 가부장적 도그마와 위계질서를 따라야 했던 수녀라는 모순적 상황에 있던 그녀에게 교회권력이 부과한 침묵과, 후아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침묵 사이의 괴리와 갈등이 어떻게 텍스트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 본 논문은 『아테네 여신의 지혜에 필적하는 편지』와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후아나 문학의 침묵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지층들

후아나 수녀의 문학세계에 있어 침묵이 지니는 의미는 그녀의 평생의 열정이었던 지적 추구의 양상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테마로 특히 후아나 수녀의 말년의 작품들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따라서 후아나 수녀의 침묵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주요 후아나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의 『후아나 수녀 혹은 신앙의 덫 Sor Juana Inés de la Cruz o las trampas de la fe』(1982)는 후아나 수녀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550쪽이 넘는 방대한 책에서 파스는 17세기 누에바 에스파냐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후아나 수녀의 지적세계를 조망한다. 『고독의 미로 El laberinto de la soledad』(1953)에서

멕시코인의 정체성과 고독을 분석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는 그는 후아나의 고독 역시 지극히 멕시코적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외감의 연장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그의 문화 연구에 거세게 비판을 한 페미니스트 비평가 그룹 중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스테파니 메림(Stephanie Merrim)이다. 그녀는『근대 초기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와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수녀 Early Modern Women's Writing and Sor Juana Inés de la Cruz』(1999)에서 파스가 후아나가 사생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부재를 외할아버지의 서재가 대체했다는 프로이드적인 분석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틀에 사로잡혀 있고, 후아나의 침묵과 고독이 멕시코라는 특이한 문화적 환경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젠더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후아나의 침묵이 멕시코적인 것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건, 근대 초기 여성작가로서의 사회적 제약에서 해석되건 각기 문화적 정체성과 여성작가라는 연대감의 발로로 해석되는 것은 각기 비평의 입장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메림으로 대변되는 페미니즘 비평의 연장선상에서 후아나의 침묵의 수사학에 대한 연구 중 하위주체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주의적 분석을 하는 연구는 호세피나 루드메르(Josefina Ludmer)의 「약자의 책략 Tricks of the weak」이다. 루드메르는 후아나에게 있어 침묵은 지식을 쌓아가는 ‘프락 시스이자 저항의 공간(1991: 91)’이라고 보고, ‘말하기’로부터 ‘알기’를 분리시키며 ‘말하지 않는 삶’, 즉 침묵 속에서 자신의 학문을 견지한다고 본다. 후아나는 성 바오로가 ‘여성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 “저는 남에게 가르치거나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덜 무지하기 위해 공부할 뿐이지요(The Answer/La Respuesta, 1994: 46)”라고 말한 것을 루드메르는(1991: 91) 그녀가 타자(남성들)의 영역인 ‘논쟁하기’에 가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며 침묵 속의 그녀의 삶의 영역을 선포한다고 본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신학의 시종’이라 후아나가 칭한 제반 학문들의 경계는 무너지고, 심지어는 책과 교육을 통한 학문체계와 요리와 같은 실체생활에서의 삶의 경계는 무너지는데 루드메르는 이러한 “말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성차를 넘어선 사적 공간(1991: 93)”이라는 것을 후

아나가 밝히되, “교회라는 공적 영역의 신학적 답변 요청에 제도적 약자로서 즉답을 피하는, 즉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이야기 하는 전략을 취한다(1991: 91)”고 주장한다. 이에 복서(Bokser)는 루드메르가 후아나가 ‘침묵의 표식’을 천명하며 침묵의 전달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2006: 18)며 비판한다. 하지만 루드메르는 이러한 표식을 남기는 프락시스 자체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 프락시스의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루드메르의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비평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기’라는 수사 중 전달(delivery)의 차원에서 주교에게 답하는 문제, 바오로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성의 신학적 견해 피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답변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서전적 자기 고백의 차원에서 삶의 독해과정으로서의 침묵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의 열개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기’는 정치적이고 위계적인 상황에서 일부터 말하지 않는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숭고한 삶이던, 헤르메스적인 신비한 삶이던 침묵 속에서 표출되는 내적 성찰에 대한 간접적 표현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아나 수녀의 침묵의 수사적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녀의 신학적인 논쟁을 담고 있는 서간문이나 『꿈 Sueño』에서 드러나는 스콜라주의와 계몽주의의 과도기 선상에 있었던 그녀의 신학적 입장과 지식과 침묵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미 플라톤은 “사고는 영혼 스스로의 침묵의 대화이고, 언표는 영혼의 타자와의 대화(Basulto, 1974: 879에서 재인용)”라고 하지 않았던가? 흔히 수사적 분석이란 언표된 것만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파스도 “우리가 후아나를 읽을때 그녀의 단어들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을 파악해야 한다(Paz, 1982: 6)”고 한 것처럼 후아나의 수사학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언표되지 않은 침묵의 의미의 전략과 내용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는 서간문에 나타나는 침묵의 수사적 분석을 통해 침묵의 정치적 맥락과 수사적 전략과 동시에 세계에 대한 성찰적인 지식에 대한 자기고백으로서의 침묵의 의미를 동시에 아우르며 그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침묵의 가면들(personas)의 정교한 선물(fineza)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이 나오기 십년 전인 1681-2년 후아나 수녀가 자신의 고백신부인 안토니오 누네스 데 미란다(Antonio Núñez de Miranda) 신부에게 보내는 서간문을 쓰는데 이는 1980년 몬테레이에서 발견되어서 일명 『몬테레이 서간문 Carta de Monterrey』라고 불린다. 여기서 그녀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사하셨고, 주님이 자신에게 글쓰기에 대한 매혹을 안겨다 주었기에 종교적 영성 靈聖에 관련된 주제 이외의 세속적 글쓰기를 제한하는 고백신부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열쇠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영성은 “명령에 따름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깨달음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라며 작별을 고한다(Georgina Sabat de Rivers, 2002: 62-3). 특히 “천국은 하나의 명령에 의해 다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쇠들을 통해 근접할 수 있는데, 그 곳에는 다양한 천재들의 대저택이 무한히 널려 있다(Georgina Sabat de Rivers에서 재인용, 62)”는 표현은 그녀가 평수녀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의 영혼을 규율하는 교회의 제도와 권력에 맞섰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이면에는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들의 전폭적인 후원에서 힘입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라구나 백작이 즉위한 지 일 년을 겨우 넘겨 이 글이 씌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평소 후아나의 지적 추구와 글쓰기에 대한 열정과 이를 위해 수녀원에 들어 온 동기를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녀는 데레사 성녀의 체험처럼 신비적 체험이나 초월적 기도를 통해 신에게 다다를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자발적 의지와 이해를 통한 실천적 헌신을 통해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그녀의 종교적 믿음은 윤리적 추론과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는 인간의 모습 안에 있었다.

『아테네 여신의 지혜에 필적하는 편지』(1690)는 후아나가 당대 가장 영향

력 있는 강론자인 포르투갈 출신 안토니오 비에이라(Antonio Vieyra, 1608-1697)가 리스본에서 한 강론에 대한 반박문인데 이는 원래 출간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신학논쟁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지인들의 요청에 의해 정리한 글이다. 하지만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필로페아(Filotea)라는 가명으로 서문을 쓴 푸에블라의 대주교 마누엘 페르난데스 데 산타 크루스(Manuel Fernández de Santa Cruz)에 의해 출간되고 만다. 비에이라 신부의 설교문은 이미 40년 전의 것이었지만 그의 신학은 당시 멕시코 대주교인 프란시스코 데 아가르 이 세이하스(Francisco de Aguiar y Seijas)에 의해 신봉되었다. 예수회 출신인 아가르 이 세이하스는 소문난 여성혐오주의자로 수녀가 글쓰기에 전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나중에 후아나의 4000권에 달한다는 방대한 도서관과 악기, 천체망원경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동냥을 하는데 개입한 인물이다. 후아나는 사적인 자리에서 비에이라 신부의 강론을 비판했고, 이를 아가르 이 세이하스에게 추기경 자리를 내준 푸에블라 대주교가 부추겨 원고를 쓰게 했고, 출판하지 않고 단지 읽기만 하겠다는 약속으로 원고를 건네받은 푸에블라 주교는 필로페아 수녀라는 가명으로 쓴 서문에서 오히려 세속적인 글을 쓰지 말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세속적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에 필적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제목을 다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 글을 출간함으로써 교계에 미칠 파문을 예상한 주교는 설사 자신이 출판한 장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서문에서 후아나 수녀에게 훈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의 훈계는 후아나의 비에이라 신부에 대한 신학적 반박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써 영성의 수련에 전념하며 신에게 순종하라는 가벼운 조언에 불과했다. 그녀의 글이 지니는 명확한 논리에 감탄하면서도 데레사 성녀처럼 영성적인 글쓰기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면서 작가의 여성성을 논의의 전면에 부각시킨다. 자신이 추기경처럼 가부장적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로페아 수녀라는 가면을 쓰고 논의를 전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면 쓰기는 그다지 정교하지 못해 화자의 여성 가면 쓰기는 후아나가 어린 시절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남장을 했던

것만큼이나 조야했다.

제가 여성이 글쓰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의견을 강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문학 공부를 해서 예로니모 성인의 칭찬을 받았지요. 성 바오로가 여성은 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 보다 현명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성적 차이에 대해 공허한 편견을 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했어요. 신성한 지혜는 사라(Sarai)의 이름에서 철자 하나 떼게 했고, 아브람(Abram)에게는 철자 하나를 추가해 주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이 보다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i라는 철자가 사라(Sara)라는 이름에 추가되어 부풀어 오르거나 거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지요(Obra Selecta II, 1987: 200).

마누엘 페르난데스 주교는 서두에서 후아나의 비판이 너무도 명쾌하게 씌어졌기 때문에 출간한다고 칭송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견해 대신에 비판을 위한 비판의 필요성으로 여성으로서의 글쓰기가 갖는 오만함에 대해 경계한다는 논조로 논지를 흐리고 있다. 후아나 수녀에 대한 배려와 애정의 발로에서 글을 쓴다는 외피 속에는 자신이 혐오하는 추기경이 경외하는 신학자에 대한 반박문을 세상에 알리고는 싶은 출간동기가 숨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한 가면 쓰기를 하고 만다. 여성의 굴종과 침묵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는 서문이 아닌 후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평가보다는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의 후아나에게 미칠 반향을 선구적으로 예언하는 친절함을 베풀고 말았다.

그가 인용한 사라는 신약에서는 경건한 아내의 모범으로 표현되지만 유대 문학 전통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예지 능력을 갖는 인물로 나온다. 그들이 노인이 되어 이사악을 낳기 전 이스라엘의 국부와 국모가 된다는 의미에서 아람이라는 특정 부족이 아닌 일반 명사로서의 다수의 아버지와 공주라는 의미로 개명할 것을 야훼가 명령한다. 아브라함이 백 살, 사라가 아흔 살이 되던 해 천사가 사라의 임신소식을 알리자 사라는 회의적인 미소를 짓는다. 이러한 사라의 미소는 신의 말씀에 대한 회의로 해석되어질 수 있

는데 푸에블라 주교가 사례의 이름 개명의 의미를 오독하면서 사례를 전면
에 부각시킨 것은 이러한 회의의 미소를 후아나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
하기 위함이었다. 즉 후아나의 논지전개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되 그녀가 여
성이라는 이유로 이단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암시를 은연중에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후아나의 글에 경탄하는 자신의 주체 역시 표면상으로는 여성
이기에, 그 가면 속에 숨은 주교는 이 책을 출판함으로써 야기되는 신학논
쟁 및 종교재판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할 수 있었다. 그는 후아나에게
글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의 글을 출판했고, 종교적 주제의 글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그가 혼계한 그녀의 글은 다름 아닌 신의 가장 큰 선물에 관
한 것이었다.

비에이라 신부의 강론내용을 다루는 후아나의 신학적 쟁점은 주님의 은총
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와의 관계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사랑 혹은 선물(fineza)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Fineza는 정
교함, 사랑의 말이나 몸짓, 선물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 옥타
비오 파스는『후아나 수녀 혹은 신앙의 덧』에서 비에이라 신부는 fineza를
‘원인과 목적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 혹은 사랑의 순수함’으로 본 반면
(1982: 512-513) 후아나 수녀는 ‘사랑이 현실화되어 외부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즉 본질이나 양태이나 하는 차이인데 예수의 인간의 대한 사랑의 동
인에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가령 예수가 유다의 발도 씻겨
준 것을 비에이라는 그가 원인 목적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 본 반면,
후아나는 발을 씻겨 준 동기는 사랑이고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의 선물
(fineza)라고 반박한다(Paz, 1982: 515). 비에이라는 “그리스도는 차신의 사랑
에 대한 응답을 바라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그의 사랑의 증표”라고 본
반면 후아나는 “모든 사랑 중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가장 상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는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응답을 바랬고 이러한 응답의 유용성
으로 인간을 사랑했다(Paz, 1982: 516)”고 반박한다. 즉 예수에게 있어 인간
에 대한 사랑은 그의 궁극적 사랑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
스(1982:516)는 이러한 후아나의 추론에서 왜 예수가 인간이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도출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예수는 인간이자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원하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후아나의 답변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신의 사랑은 막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적으로 비에이라의 결론과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신의 인간에 대한 목적 없는 사랑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어서, 신은 인간에게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데 그 둘 다 신의 인간에 사랑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호의는 뒤로 미루고 신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대로 설 수 있도록 아무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신의 침묵은 곧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도발적 결론까지 푸에블라 주교가 동의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필로페아의 목소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녀가 지상에서의 신의 선물보다는 천상에서의 은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후아나의 신의 소극적 침묵이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역설적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을 떠올리게 하는데, 후아나의 신학은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처럼 모든 악(惡)의 불협화음도 결과적으로 선(善)의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악으로 보는 합목적적 세계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지만 도덕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간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현상에 대한 세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IV. 표식(breve rótulo)되어지는 침묵의 의미

신의 적극적 개입이 아닌 소극적 침묵이 곧 사랑이라는 도발적 메시지는 그녀의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발전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정황과 그녀에게 다가올 혹은 스스로 부과하는 침묵이 결코 인식에 대한 열망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는 필로페아 수녀의 가면을 벗기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면을 덧씌운 채로 답변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자신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일단 푸에블라 주교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을 종교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불필요한 신학논쟁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저의 여인이시여,
이렇게 오랫동안 저의 답신이 늦어진 것은 제 의지가 아닌 심약한 건강과 당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무딘 펜촉을 끄적이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우선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난관(제게 제일 힘든 것이기도 한데)은 당신의 엄청난 학식 있고, 신중하고, 독실하고 사랑스러운 편지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이 그의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누군가 묻자, 감히 알베르투스에 상응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성인처럼 겸손해서가 아니라 당신께 그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진정 모르겠기에 그래요. 두 번째 장벽은 저의 초안을 출판해주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지 엄두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는 제 정신을 가진 저로서는 언감생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이러한 호의는 너무도 크고 기대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언어라는 틀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퀴틸리아누스는 ‘희망으로는 영광이 덜하고 주어진 혜택을 통해 그 영광이 커지니라’고 말했지요(The Answer/La Respuesta, 1994: 38).

후아나 수녀는 답변의 수신인인 필로메아 수녀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답변 여하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종교재판관에게 맡겨질 수 있다는 위기를 너무도 잘 감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후아나가 푸에블라 주교로부터 『아테네 여신의 지혜에 필적하는 편지』라는 책자를 건네받은 지 석 달 만에 답변을 완성한다. 부왕이었던 라구나 백작은 임기를 마치고 후아나의 강력한 보호자였던 백작부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푸에블라 주교의 기대대로 평수녀 신분으로 당대 최고 권위의 신학자의 글을 비판했다는 것 자체는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누구보다도 멕시코 추기경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부왕의 임기가 시작된 후 기근이 계속되어 옥수수 생산량이 줄자, 1692년 멕시코시티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궁정의 통제력은 현격히 약화되어 있었다(Paz, 438-44). 후아나는 서둘러 자신에 대한 변론을 써야 했다. 직접적인 수신인이 마누엘 페르난데스 주교라는 것, 그리고 멕시코 대주교 아기아르 이 세이하스와 자신의 고백신부였던 안토니오 누네스 데 미란다 신부가 이 글에 대해 심판을 내리리라는 것을 잘 아는 상태에서 수신인에게 평등한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없었다. 감히 답변하기 힘든 상대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려면 겸양의 수사적 기재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했고 자신이 처한 위기를 친구들에게 은연중에 밝혀야 했다. 동시에 이러한 수사적 기재의 과잉 속에서 마누엘 페르난데스의 과잉친절을 은연중에 비꼬아야 했다. 과잉 수사의 외피 속에서도 아이러니를 통한 비판의 날이 항상 서려 있어야 했다. 필로페아에 대한 과도한 찬미 속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글을 출판한 마누엘 페르난데스에 대한 원망이 역설적으로 서려 있다. 특히 “제 정신을 가진 자”(ente racional)라는 표현은 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겸양의 수사의 내피 속에는 자신은 이성적 존재이고 비겁하게 악속을 저버리고 여장을 한 주교야말로 비이성적 존재(ente irracional)일 수 있다는 암시(Electa Arenal & Amanda Powell, 1994: 107)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교회에서 바라는 신비적 글쓰기를 하는 초월을 향한 존재(ente sobrenatural)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라는 자기규정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현학적 지식을 당시 궁정에서 유행하는 격식 있고 화려한 수사 속에 잘 포장시킨 외피 속에서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외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후아나는 외부에서 침묵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도, 자기검열을 통한 침묵을 먼저 내비친다. 여기서 외부의 억압을 예비하며 겸양과 자기검열을 수행하는 침묵에 대한 수사(修辭)는 일종의 선회축(pivot)작용을 하는 기제가 된다. 즉 그녀의 인식을 통한 추구는 외부에 의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외피를 벗어버린 침묵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질 것이라는 선언적 암시가 글의 전개를 통해 점차 강화된다.

저의 여인이시여, 진리의 힘에 대해 씩씩하느라고 잠시 논지에서 벗어난 것을 용서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 전부 다 고백을 한다면 너무 장황하게 논지에서 벗어나서 제가 당신께 답변을 드리는 어려움을 피하는 핑계가 될 터라,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어서,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신성하게 선택된 그릇이 세 번째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주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보고는 “그는 지상낙원에 사로잡혀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적지요.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는 말할 것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성요한은 우리 구세주에 의해 쓰인 경이로움을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을 다 뒤덮을 책으로도 모자란다고 했지요. 비에이라는 사도 요한이 한 구절로 말한 이 부분을 자신의 모든 저작에 걸쳐 이야기하지요. 포르투갈의 불사조가 너무도 훌륭하게 이야기하고는 있는 이유는(하지만 그의 말이 잘 표현되지 않거나 그가 잘못 표현할 때는 어찌지요?) 성요한이 표현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여인이시여,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당신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해요. 그리고 총애와 명예를 선사받은 확신이 설 때 제가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간단한 표식을 남기는 방식으로 감히 당신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The Answer/La Respuesta, 1994: 40-2).

여기서 “간택된 신성한 그릇”은 성 바오로를 일컫는 말로 “세 번째 천국”으로 포획되어 가는 것을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비상”으로 표현한다(Electa Arenal & Amanda Powell, 1994: 108). 하지만 후아나는 이를 불가지론적 신비가 아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깨달음으로 재해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침

목의 표식(rótulo breve)은 중요하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과 직접 본 진리를 언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을 뒤집으며, 이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표식을 남기며 침묵 속에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깨달음에 대한 언어라는 매체의 표현불가능성으로서의 현자의 침묵이라는 수사적 외장(外裝)의 틈새에 차마 발설할 수 없는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을 우회적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의 표현이 “포르투갈의 불사조”라고 칭한 비에이라 신부의 예를 통해 나타난다. 비에이라의 저서 두 권은 아기아르 이 세이하스에게 헌정되었기 때문에 엘렉타 아레날과 아만다 포델(1994:109)은 비에이라의 잘못 사용된 웅변에 대한 우려 섞인 표현이 곧 멕시코 대주교에 대한 우회적 저항이라고 해석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저항은 이러한 이미 자신이 비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신학자에 대한 직간접적 비판 보다 침묵을 행하는 대신 침묵을 침묵이라고 언표하며 그것에 글로 남긴다는 후아나의 선언 속에 있다. 그녀에게 다가올 침묵의 압박에 대해 침묵으로 시위한다는 것은 ‘약자의 책략’(tretas del débil)일 수 있으나 이를 후아나의 fineza에 대한 해석의 메커니즘을 응용한다면 침묵의 순수성이 아닌 침묵의 양태를 드러내며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후아나는 앞서의 서두의 인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의 애로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 앞서의 표현이 망설임과 겸양의 수사라면 언어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침묵의 소개 이후의 반복된 표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진 자신의 침묵의 언어를 새겨들으라는 뉘앙스로 그 의미가 반전된다.

그녀가 썼던 리라 중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시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멀리 떠난 사랑하는 이에 대한 한탄이라는 소재로 사용되어 그 정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파토스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침묵이 소통되길 원한다.

당신의 컷가는 너무도 멀리 있기에
 당신의 두 눈으로 제 말을 들으세요,
 메아리치는 부재한 분노 속에서
 뎨축이 주는 신음소리를 들어 보세요.
 저의 거친 목소리는 당신에게 다다를 수 없기에
 귀를 막고 저를 들으세요, 저는 병어리가 된 채로 불평하고 있잖아요.
 Oyeme con los ojos,
 ya que están tan distantes los oídos,
 y de ausentes enojos
 en ecos, de mi pluma mis gemidos;
 y ya que a ti no llega mi voz ruda,
 óyeme sordo, pues me quejo muda, (Obra selecta II, 1987: 136)

줄리 복서(2006: 15)는 후아나의 침묵의 수사학이 지니는 가장 큰 전략은 주교의 말을 중단하고 끼어드는 데 있다고 본다. 후아나 자신이 답변에 대한 논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만 할 말은 하면서 나머지는 침묵에 맡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복서가 이야기하는 전통 수사기재인 아포시오페시스(Aposiopesis)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포시오페시스는(Solane, 2001: 29) 그리스어로 ‘침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화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 싫은 그 무언가에 대한 표현의 여백을 남긴 채로 놔두어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종종 화자가 두려움, 분노, 기쁨과 같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겸양의 표현을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화용론적 기재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척 하는 겸양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후아나가 모두에 사용했지만, 인지하는 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직한 표식까지도 아포시오페시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쓴 유일한 글이라고 밝히는 「꿈 Sueño」(1692)에서 후자의 상황이 몽환적 배경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 시에서 신성한 얄이라는 빛의 틈새를 엿보고 있는 후아나 자신의 투사라 할 수 있는 커다란 눈을 가진 부영으로 변용된 넉티메네는(송상기, 2006: 274) 점차 침묵의 소리를 내고 만다. 여기서 음파가 완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혼탁음은 곧 침묵에 대한 전주곡, 즉 표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침묵의 표식은 청자나 독자에 대한 화용적인 상상 유발 효과나 우회적인 저항의 도구라기보다는 내적고백 속의 자기침잠에 대한 예시라고 봐야 한다.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은 「꿈」에 대한 일종의 각주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부터 파문을 당할 위기에 처한 순간까지 자신의 가장 큰 열정인 삶의 추구의 여정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는 「꿈」에서 어두운 영혼의 그림자가 총체적 삶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 대한 모범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침묵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된다. 자신의 독서와 저술활동에 끼어들어 선의의 악행을 하는 수녀들에 대한 묘사나 자신의 유일한 스승을 “말하지 않는 책(libro mudo)”이라 표현한다. 또한 초월적 도약을 통한 총체적 세계를 보는데 실패한 어두운 영혼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을 혼용하면서 본 세계에 대해 언어의 한계를 느끼며 침묵하지만 “빛으로 가득 찬 세상과 깨어난 나 el mundo iluminado y yo despierta (Sueño, 975행)”라는 마지막 행은 분명 새로이 세계를 본 자의 침묵의 표식이다. 이렇듯 침묵은 후아나에게 있어 진리 추구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아나의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침묵에 대한 표식은 짧은 호흡으로 걱정의 파토스가 스며들어갈 때는 차마 밝힐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호소와 은밀한 저항을, 긴 호흡의 정적 속에서 간신히 표현될 때는 대상(시니피에)을 언표(시니피양)할 수 없으며 그 대상 속에 침잠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에토스를 표현하는 메타담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V. 에필로그

침묵 안에서만 포착되는 아는 것에 대한 표식을 후아나 수녀는 데레사 성녀처럼 희열의 감정에서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느낌을 비유적 언어로 노래하지 않았다. 마치 사라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소식에, 아브라함이 감격에

가득 찬 미소에 비해 사라가 의구심 어린 미소를 지은 것처럼, 후아나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사색하며 침묵을 담담히 기록한다.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의 말미에서는 침묵의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글쓰기를 요청받고 어쩔 수 없이 적는 이 기록 역시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자신의 손이 아닌 신학을 하는 필로페아 수녀에게 “앞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글은 쓰지 않겠다(The Answer/La Respuesta, 1994: 102)”고 적고 침묵의 세계로 접어든다. 물론 그녀가 완전히 절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신학적 글이나, 앞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의 글은 나오지 않았다. 『필로페아 수녀에게 보내는 답신』이 출간된 지 이년 후 그녀의 두 번째 책이 스페인에서 출간되자 결국 그녀는 종교재판을 받게 되어 공개검열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는 혈서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나”라고 적고, 자신의 모든 책을 기부하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감염되어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굴종이자 저항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침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언표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언표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의 질곡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비극적 삶은 학문을 통한 진리추구와 르네상스의 합리주의 정신,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존의 봉건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스콜라 전통이 공존하고 있던 모순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당시 스페인과 신대륙을 지배하던 바로크 문학은 화려한 말의 성찬을 통해 현상의 덧없음을 드러내는데 반해 그녀는 화려한 수사 속에서도 침묵의 표식을 통해 삶의 윤리적 성찰을 잃지 않는다. 그녀에게 “말은 사려 깊음과 지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지와 오만함을 드러내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덕이자 죄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침묵은 성스럽고 심오한 생각의 표식이며 끊임없는 탐구정신을 상징(Moraña, 1998: 156)”한다. 그녀는 말과 침묵 사이의 긴장을 통해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가면 놀이, 가부장적 교회질서와 여성지식인 사이의 질곡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와 동시에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적 총체적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보다 경험주의적이고 계몽적 이성을 통한 자신의 침묵의 표식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새겨들을 것을 요구한다.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침묵이 그것이 권력관계이건 젠더나 계급의 상이함에서 기인하건 타자와의 소통불능에 대한 결과라면,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침묵은 바로 순수 인식 그 자체의 회열에 있다. 후아나의 침묵의 수사학에는 짧은 호흡의 저항의 파토스와 긴 호흡의 성찰의 표식을 통해 드러나는 에토스가 혼용되어 있다. 그녀를 휘감던 짧은 호흡의 침묵의 탄식과 저항은 바로 진리추구에 대한 열정이라는 그녀의 지적 윤리성을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강혜원. 2005. 「후아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수녀의 「꿈」에 나타난 삶과 신체의 의미」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송상기. 2006.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개념으로 읽는 후아나 수녀의 꿈에 나타난 바로크적 그림자」. 《스페인문학》, 38: 269-286.
- Beaupied, Aída. 1996. "El silencio hermético en *Primero sueño* a la luz de la figura e ideas de Giordano Bruno." *Hispania*, 79(12): 752-761.
- Basulto, Hilda. 1974. "La fenomenología del silencio. Apuntes para una temática por investigar."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36(4): 877-885.
- Benassy-Berling, Marié. 1983. *Humanismo y religión en Sor Juana Inés de la Cruz*. México: UNAM.
- Bokser, Julie A.(2006), "Sor Juana's Rhetoric of Silence." *Rhetoric Review*, 25(1): 5-21.
- Cruz, Sor Juana Inés de la. 1987. *Obra selecta I*. Caracas: Biblioteca Ayacucho.
- _____. 1987. *Obra selecta II*. Caracas: Biblioteca Ayacucho.
- _____. 1994. *The Answer/La Respuesta*. Electa Arsenal and Amanda Powell(eds.). New York: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Dupriez, Bernard. 1991. *A Dictionary of Literary Devices*. translated by Albert W. Halsall.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arcía Alvarez, Jesús. 1997. *El pensamiento filosófico de Sor Juana Inés de la Cruz*. México: Centro de Estudios Filosóficos Tomás Aquino.
- Guevarra-Geer, Geoff. 2007. "The Final Silence of Sor Juana: The Abysmal Remove of Her Closing Night." in Emilie L. Bergamann(ed.). *Approaches to Teaching the Works of Sor Juana Ines de la Cruz*.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1-208.
- Glantz, Margo. 1992. *Borriones y borradores*. México: UNAM.
- Ludmer, Josefina. 1991. "Tricks of the weak." in Stephanie Merrim(ed.). *Feminist Perspectives on Sor Juana Inés de la Cruz*. Detroit: Wayne State UP. 86-93.
- Merrim, Stephanie. 1999. *Early Modern Women's Writing and Sor Juana Inés de la Cruz*. Nashville: Vanderbilt UP.
- Morafia, Mabel. 1998. *Viaje al silencio: Exploraciones del discurso barroco*. México: UNAM.

- Nelson, Bradley J. 1998. "Dialogism and Sonnet: Silence, Reading and the Ethics of Knowledge in Sor Juana Ines de la Cruz." *Romance Language Annual*, 10(2): 744-750.
- Pascual Buxo, José. 2006. *Sor Juana Inés de la Cruz: Lectura barroca de la poesía*. Madrid: El Editorial Renacimiento.
- Paz, Octavio. 1982. *Sor Juana Inés de la Cruz, o las trampas de la fe*. Barcelona: Seix Barral.
- Sabat de Rivers, Georgina. 1998. *En busca de Sor Juana*. México: UNAM.
- _____. 2002. "Sor Juana Inés de la Cruz." in Raquel-Chang Rodríguez(ed.). *Historia de la literatura mexicana*. México: Siglo XXI.
- Segura, Nereida. 1994. "La respuesta de Sor Juana: La retórica del silencio." *Cincinnati Romance Review*, 8: 43-50.
- Sloane, Thomas O.(ed.). 2001. *Encyclopedia of Rhetoric*. Oxford: Oxford UP.
- Trabulse, Elías E. 1998. "El silencio final de Sor Juana." *Tinta*, 143-156.

성명: 송상기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이메일: sangkee@korea.ac.kr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1일